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	
		배포일시	2021. 11. 26.(금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	
담당 부서	도로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장순재, 사무관 이용재 • ☎ (044) 201-3877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답답했던 서해안고속道, 10차로까지 확장해 상습 정체 해소

- 서평택JCT~안산JCT 구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-

- 서남부권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주요 간선축인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~안산JCT 구간(약 34km)을 확장하는 사업이 11월 26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(이하 '예타')를 통과하여 추진이 확정되었다.

< 사업개요 >

- (위치)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(서평택JCT) ~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(안산JCT)
- (규모) 34.0km & 6, 8 → 10차로 / ○ (총사업비) 약 1조원
- * 서평택JCT~비봉IC: 6 → 10차로, 비봉IC~매송IC: 8 → 10차로, 매송IC~안산IC: 6 → 10차로

- 지난 '96년 12월에 6차로로 개통한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~안산JCT 구간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로 '11년에 일부 구간(비봉~매송)을 8차로로 확장하였지만,
 - 서울-경기간의 출·퇴근 차량, 주말 나들이 차량 등 계속된 교통량 증가로 인해 총 차량주행거리*가 전체 고속도로 중 세 번째로 많아졌고, 화물차 일교통량도 다섯 번째를 차지하는 등 교통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.

* 해당 구간을 이용한 차량수 × 각 차량이 이용한 거리의 총합

- 이런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「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(‘16~’20)」에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~안산 JCT 구간 확장사업을 반영(‘17.1)하였고,
 - 모든 구간을 기존 6~8차로에서 10차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으로 예타에 착수(‘20.8)한 이후 경제성, 정책성 분석 및 종합평가를 거쳐 예타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.

- 이번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, 평일 출·퇴근, 주말 나들이 등을 위한 이동성이 개선되어 도로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,
 - 교통개선에 따른 통행시간 감소는 생활영향권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주민들이 의료시설, 공연·문화시설 및 교육·체육시설 등 주요 서비스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.
 - 아울러, 이 사업에 따라 약 1.1만명의 고용효과와 교통시간 절감 편의 등 약 2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, 지정 차로 확대 등으로 교통사고위험도 줄어듦 것으로 기대된다.

-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“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겪는 교통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, 타당성조사 및 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”이라면서,
 - 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, 지자체,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이용재 사무관(☎ 044-201-387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